

## 곤경의 연대기와 소설의 누빔점 서청송의 단편소설 〈먼저 걸으라〉(2023)를 중심으로

이지순\*

서청송의 단편소설 〈먼저 걸으라〉(2023)는 대북제재와 봉쇄, 국제적 고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액자소설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액자의 주인공 수환은 눈, 팔, 다리가 손상된 영예군인으로, 북한의 불구적 상황을 환유하며 주제를 의인화한다. 동정을 수치로 여기며 온전하게 자신의 힘으로 공장을 경영하고, 오물을 자원으로 바꾸어 봉쇄에 대응하는 수환의 성공담은 북한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이다. 소설은 영예군인 주인공의 정신적 힘과 의지를 통해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이 봉착한 위기를 자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이겨내는 원동력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어려움에 포위된 상황과 길항하며 내핍의 심화를 균열적으로 드러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속된 대북제재는 김정은 집권 초기 어젠다였던 현대화를 텅 빈 기표로 만들며, 자체 힘으로 제재에 대응하고 국산화에 성공한다는 에피소드는 자립적 국산화와 자력갱생 담론이 중첩된 곤경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생존 전략임을 나타낸다. 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필요한 수단을 자체로 마련하는 자기 거버넌스의 북한식 변형임을 표상하고 있다.

주제어: 북한 문학, 김정은 시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치의 감정, 텅 빈 기표, 현대화, 재자원화, 자기 거버넌스, 자기계발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는 말

북한 문학에는 텍스트에만 주목하여 독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북한에서 문학은 이데올로기를 생성하는 효과적인 도구이고 인민대중의 사상과 의식에 영향을 주어 행동을 촉구하는 선전선동의 관점을 자명하게 드러낸다. 신비평가들이 텍스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문학의 비본질적 요소로 보고 걷어내기 위해 애썼지만, 정치와 긴밀하게 연관된 북한 문학은 외재적 분석 방법으로 읽는 게 더 적절해보인다. 북한의 작가는 예술가의 본분보다 '사상의 기수'라는 이데올로그로서의 사명에 구속되어 있고, 작품의 생산과 유통은 국가의 압력을 받으며 회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학을 언어의 특수한 조직 형태로 보고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구조화하는 내재적 분석 방법이 북한 문학 읽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모든 예술은 프로파간다"라는 조지 오웰과 "예술은 프로파간다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모순된 관점처럼 정치와 이념은 텍스트 안과 밖을 오가며 예술적 장치와 교착하기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현지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다양한 서발턴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 문학은 공적 담론과 길항하는 현실의 하부를 징후적으로 반영하는 미디어이다. 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표상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을 정치 텍스트로 취급하며 제한적으로 독해하지만, 북한 문학은 정치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의식의 단면을 반영한다. 북한 문학이 당정책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는 것과 별개로 삶의 하부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에는 보수적이고 느리게 반응해 왔다는 관점에 의하면,<sup>1)</sup> 북한 문학의 현재성은 현실적 시간과의 실시간 대응이 아니라 동시대적 감각과 의식의 반영,

현장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텍스트 접근의 제한성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의 모든 출판물이 국경을 넘지 못했다. 국경이 개방된 이후에도 출판물에 대한 접근은 쉬워지지 않았다.<sup>2)</sup> 문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선작가동맹의 기관지 『조선문학』 및 몇몇 잡지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들어왔지만, 입수 시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 문학 연구가 지체된 상황에서 제8차 당대회(2021) 전후의 문학 동향과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sup>3)</sup> 감염병 경험이 어떻게 문학에 반영되었는지 분석한 성과가 나왔고,<sup>4)</sup> 이어 최근 북한 문학의 전개 양상도 연구되었다.<sup>5)</sup>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서청송의 <먼저 걸으라>는 『조선문학』 2023년 8호에 수록된 단편소설로 동시대적 현장감을 보여 줄 수 있는 텍스트이다.<sup>6)</sup> 이 소설은 대북제재와 팬데믹 등 중첩된 곤경을 감각하

- 
- 1) 이지순, “감각에 사로잡힌 몸의 발견과 재현: 북한 단편소설 련예성의 「사랑하노라」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40호(2023), 118쪽.
  - 2) 최근 북한 문학의 동시대성을 구체화한 연구 성과는 자료 입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 등 주요 미디어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2022년 12호까지만 입고되어 있어 자료의 한계가 여전하다.
  - 3) 김성수, “천리마에서 만리마로: 김정은 시대 11년간의 문학,” 『반교어문연구』, 제62호(2022).
  - 4) 이지순, “북한 문학의 팬데믹 재현: 재난 리더십과 코로나19 경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2, 2023년 3월 28일; 김성수,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문학,”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 5) 김성수, “선군 투사에서 ‘과학기술 룡마 기수’로: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 『통일과 평화』, 제15권 2호(2023); 김성수, “8차 당대회 전후(2019~2023) 북한문학 동향과 쟁점: 『조선문학』, 『문학신문』 매체 분석과 ‘과학기술 룡마 기수’ 형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82집(2023);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최근 『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1호(2023).

고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당면한 고민을 서사로 맥락화하고 있어 주목해 볼 수 있다.

2014년 『조선문학』에 단편소설 〈무지개〉와 〈영원할 나의 수업은〉을 연이어 발표한 서청송은 북한의 문단과 독자로부터 주목을 받았고,<sup>7)</sup>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무지개〉는 미스터리 기법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높이면서도 문학적 재미를 가미하여 문학적 성취를 보여 주었으며,<sup>8)</sup> 〈영원할 나의 수업은〉은 사회주의 현실의 억압적 이면을 생동감 있는 인물 형상과 심리 묘사, 흥미로운 플롯 구성으로 흡인력 있게 형상화했다.<sup>9)</sup> 서청송은 2017년에 단편소설 〈무지개〉와 〈유동봉의 열여섯집〉을, 2019년에 〈기폭에 빛나는 별〉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걸으라〉는 〈기폭에 빛나는 별〉 이후에 『조선문학』에 선보인 최근작이다. 〈기폭에 빛나는 별〉이 제재와 고립 속에서 자력갱생 의지와 실천으로 더 나은 사회로 진일보하고 있음을 세계 일등주의로 형상화하고 있다면,<sup>10)</sup> 〈먼저 걸으라〉는 세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자력갱생을 표상한 차이가 있다. 서청송은 꾸준히 당정책과 담론을 문학의 주제로 반영하고 있지만,

---

6) 서청송, 〈먼저 걸으라〉 『조선문학』, 제8호(2023), 61~74쪽.

7) 2014년에 발표된 〈무지개〉는 2015년에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 1등 상을 받은 최진혁의 평론에서 “새로운 성격형상과 정서적 감화력으로 독자의 심금을 울어잡”은 “사상에술적성과”로 평가받았다. 최진혁, “무지개에 비긴 정서와 량만,” 『조선문학』, 제6호(2015), 55쪽.

8) 오창은, “북한문학의 미적 보편성과 정치적 특수성: 비체제적 양식과 민중적 해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41호(2015), 44쪽.

9) 오태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고찰: 사회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균열적 독해,” 『인문학연구』, 제38호(2018), 164쪽.

10) 오태호, “2019년 『조선문학』을 통해 본 북한문학의 당문학적 지향성 고찰: 자력갱생의 정신, 세계 일등의 지향, 과학기술 강국의 욕망,” 『한민족문화연구』, 제71집(2020), 23쪽.

시대의 변화상을 경쾌한 문체와 생동한 심리 묘사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역량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먼저 걸으라〉는 북한 소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액자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말재주가 뛰어난 강담사(講談師)처럼 소설 속 청자에게 구어체적 말하기를 구사하며 읽는 재미를 준다. 관찰하고 경험하고 느낀 바를 청자에게 직접 토로하는 서사 전략은 진부하고 도식적인 액자소설 기법에 활력을 넣는다. 또한, 주제를 의인화하여 직시적으로 표현하고 사물에 주제를 표상한 개념적 비유(conceptual metaphor)를 사용한다. 실패를 통해 미래를 낙관한다는 결말 부분 또한 신선한 편이다.

세부적으로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주요 어젠다였던 ‘현대화’ 정책이 대북제재,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텅 빈 기호가 되고 있음을 재현하는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서사 패러다임에 의하면, 개인은 이야기 세계와 자신의 세계 사이의 일치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한다. 서사의 일관성을 검토하여 서사의 합리성을 판단한 이후에야 수용자는 서사를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다.<sup>11)</sup> 공장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대학들, 김정은의 연설 시기와 내용, 법령 발표 등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서사의 주요 맥락에서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의 성취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 속 무대는 허구 기반의 가상적 공간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장소와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독자의 현실 세계 신념에 변화를 유도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sup>12)</sup> 소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액자 주인공

---

11) Walter R. Fisher, "Narration as a Human Communication Paradigm: The case of public moral argument," *Communications Monographs*, Vol.51, No.1(1984), p.13.

12) Markus Appel and Tobias Richter, "Persuasive Effects of Fictional Narratives

공의 신념과 행동이지만, 이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와 경합하며 서술되고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배가한다. 액자 속 인물이 성취를 이루는 과정과 이를 보고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하는 부분은 심리적 불쾌와 뼈아픈 깨달음을 동반하고 있어 흥미를 더한다.

이 같은 분석의 개요는 내재적 읽기와 외재적 읽기를 교차하여 살펴봄으로써 가능했다. 이 글은 소설의 서사 전략과 함께 초점화된 주제 의식을 통해 최근에 당면한 북한의 변화와 고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사의 기본을 중심으로 우선 독해한 후 반영론적 관점을 상보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 재현이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는지 문학의 내재적 원리와 외재적 환경 요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신념과 정서의 미세한 움직임을 탐색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포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2. 액자소설의 구조화와 서사 전략

### 1) 액자의 서사 구조

서청송의 <먼저 걸으라>는 ‘ㄷ 신발공장’ 지배인 유봉일이 사회주의경쟁총화가 진행되는 경공업성 회의실에서 ‘○○영예군인공장’ 지배인 김수환을 찾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수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회의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남아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배인들은 봉일네 공장에서 나온 ‘사출구두’ 품질이 좋다고 칭찬하였으나 봉일은 수환네 공장

---

Increase Over Time,” *Media Psychology*, Vol.10(2007), p.128.

제품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 지배인들은 영예군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 공장을 그렇게 발전시켰는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봉일은 그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수환과의 전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설은 액자 밖(작가 시점)–액자 안(일인칭 화자 '나' 봉일의 시점)–액자 밖(작가 시점)으로 연결되며 이중의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자 밖은 경공업성 회의실을 배경으로 소설적 현재이자 소설이 발표된 2023년을 반영한다. 액자 안은 화자 봉일이 일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수환이 영예군인이 된 사건부터 현재까지 수환의 일대기를 전한다. 액자 밖 작가 시점이 객관적 평어체로 되어 있다면, 액자 안은 지배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봉일의 주관적 어조인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다. 액자 안은 수환의 일대기가 군 복무 시절, 제대 후 취업, 대학 진학 및 결혼, 고난의 행군기, 2000년 새 세기 전환기, 김정은 집권 초기 2013년, 코로나 팬데믹, 핵무력정책 법령이 발표된 2022년 9월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봉일과 수환의 나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현재 나이는 5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서술 맥락으로 보았을 때 수환은 1980년대 중후반에 군을 제대했고, 이후 대학에 다니면서 연애하고 결혼했다. 대학 졸업 후 공장의 판매지도원으로 배치되었고 이후 고난의 행군기를 보냈다. 새 세기인 2000년대에는 공장 지배인이 되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공장 현대화를 이루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재자원화와 국산화로 공장 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내며 서술 시점인 현재, 즉 2023년이 되었다.

## 2) 자기 고백적 내부 서술

봉일은 전지적 화자가 아니기에 수환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알

수 없다. ‘나’는 내부 이야기를 진행하는 서사의 매개자로서, ‘나’의 관점에서 수환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인물인지 기술하고 있다. 동시에 수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독자가 수환의 행위를 볼 수 있게 풍경적 기법인 파노라마적 관점(panoramic view)을<sup>13)</sup> 사용하여 수환의 행적을 서술한다. 파노라마적 관점은 화자인 ‘나’가 그동안 보고 듣고 모은 정보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이야기를 매개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시점이 충돌되지 않게 조정한다.

예컨대 수환이 대학 재학 중에 만난 여성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은 봉일이 직접 관찰하지 않았으나 파노라마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된다. 봉일이 대학 졸업식에서 본 수환의 약혼녀 리금희는 아름다운 외모에도 시 처녀들과 달리 노동으로 단련된 강의(剛毅)함까지 갖춘, 온 군이다 아는 혁신자였다. “눈이 얼마나 높은지 술한 총각들이 따라다녔”지만, 처녀는 도리어 수환이 걷는 ‘옳은 길’과 ‘정열’에 반했다고 한다.<sup>14)</sup> 수환의 연애와 결혼 에피소드는 봉일이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수환을 소개하는 처녀의 언술과 수환을 만나게 된 처녀 어머니의 충격이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서술된다. 관찰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 변화는 “하더랍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짓더랍니다”와 같은 간접화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화자가 수환에게 들은 전말을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자들에게는 마치 옆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상세하게 내막을 알리는 효과를 준다.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구술적 기법은 봉일이 이야기꾼으로서 적절한 논평을 곁들이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예컨대 화자는 수환

---

13) Percy Lubbock, *The Craft of Fiction*(Project Gutenberg eBook, 2006,8,1), para. 73, <https://www.gutenberg.org/cache/epub/18961/pg18961-images.html>(검색일: 2024년 6월 19일).

14) 서청송, <먼저 걸으라>, 63쪽.

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속어를 재담처럼 섞어 소설 속 청자인 지배인들과 소설 밖 독자에게 질문하듯 건넨다.

만약 제가 그 공장 종업원이었다면 우리 지배인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비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솔도 손로동으로 만들던 공장에서 장화를 생산한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66쪽)

나는 리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못한것을 영예군인들이 어떻게 것처럼 잘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혹시 영예군인공장이어서 우에서 특별히 도와주는걸가? 그럴수도 있겠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67쪽)

신체가 불편한 영예군인들이 보통의 노동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혹은 상급 기관에서 특별히 도와주는 게 아닌지 의문을 던지는 형태는 주로 에피소드 전환 시에 등장한다. 이는 다음에 이어질 에피소드에 호기심을 갖게 하면서 은근히 수환을 낮잡아 보는 ‘나’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나’의 불신에 반전을 주는 서술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액자는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중첩되는 여러 이야기를 다발로 묶어 현재의 시공간에 통합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액자의 내부 이야기는 자기 고백적이기에 신뢰성이 크다. ‘나’는 수환이 겪는 사건과 행위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핵심 서사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매개자이다. 특히 “내가 몇년후에 직접 체험하였는데”와<sup>15)</sup> 같이 화자의 경험담

---

15) 서청송, <먼저 걸으라>, 67쪽.

이 섞여 있어 서사의 설득력을 높인다. 수환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그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지켜보고, 때로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화자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있다. 북한 문학에서 진부하게 등장했던 액자 구성이 이 소설에서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나’는 수환이 겪는 사건에 영향을 주고 수환의 인생 경로에 변수로 작용하며 서사의 참여자로 기능한다. 즉, ‘나’ 봉일은 액자 속 사건의 시공간에 있으면서 수환의 보조자이자 경쟁자이고, ‘나’의 감정과 생각은 독백으로 나오거나 청자/독자에게 건네는 질문에서 노출된다. 액자의 핵심 서사 속에서 낮은 기대와 불신에도 굴하지 않는 수환의 결심과 행동, 그로 인한 결과물은 북한이 시대적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을 환유한다.

### 3. 인물의 성격 표상과 서사 맥락

#### 1) 높은 정신세계를 표상한 인물

내부 이야기는 수환의 사고에서 시작한다. 폭발물처리대에 속했던 수환과 봉일은 제대를 앞두고 불발탄 해제 임무를 맡았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임무가 난관에 봉착하자 봉일은 장마가 끝난 후 ‘안전하게’ 해제하고자 했으나 수환은 ‘먼저분대장’으로 불릴 정도로 무슨 임무든 먼저 맡아 나서는 성격답게 봉일의 결정에 실망한다. ‘명령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환은 앞서 나가 단독으로 불발탄을 해제하다 결국은 폭발에 휘말리고 만다.

소설에서 수환은 명령 이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물로 주변 상황과

환경을 개의치 않는다. 북한 문학은 합리적인 판단보다 임무에 대한 결사 관철을 주인공의 덕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무조건 명령을 관철하는 수환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 소설 또한 개인의 안위보다 상부의 명령을 중시하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수환은 영예군인이 되었어도 신체적 결함은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수환은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의 행동력을 가진 인물이다. 당의 명령을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하고 거침없이 달리는 수환은 북한 문학예술에서 주로 발견되는 긍정적 주인공 유형이다. 수환은 상대에 대한 실망감과 서운함을 내비치긴 해도 내면적으로 갈등하거나 변민할 정도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수환의 정신과 의지는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그의 신체적 결함은 “조국을 위해 바친 영웅적 기개와 높은 정신세계”의 상징이기에<sup>16)</sup> 자신감과 자존감을 드높이는 훈장처럼 표상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나 대북제재, 코로나 팬데믹처럼 불가항력적인 시대적 환경에 어려움을 겪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수환의 성격은 북한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면모이다. ‘높은 정신세계’를 가진 수환은 내면적 성장이 완성된 인물로, 난관 앞에서 고민은 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과 국가를 내면화한 의지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다. 수환은 소설의 주제를 의인화하고 있지만, 평면적이어서 인간적인 매력과 생동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반면에 봉일은 영예군인을 배려하고 동정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체면 때문에 결정을 철회하는 등 상황에 따라 감정과 태도에 기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봉일은 수환이 옳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현실에 반응하고 대처하며 겪는 봉일의 시행착오가 오히려 현

---

16) 위의 글, 63쪽.

실적일 수 있다.

## 2) 동정과 불신, 배려와 위선의 양가적 인물

감정적 고저가 거의 없는 수환과 달리 봉일은 상황에 따라 심리와 감정 변화를 겪는다. 그렇다고 그가 주인공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면서 그를 방해하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인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은 관찰자적 위치에 놓여 있는 화자”로서<sup>17)</sup> 수환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봉일은 제대하여 수환과 만난 후에야 “한쪽눈을 상해서인지 색안경을 끼고 왼팔은 의수”를 하고, “오른손엔 지팡이를 쥐고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오른쪽다리를 조금씩 절”고 있는 부상의 전모를 파악한다. 영예 군인공장에서 경비를 서는 수환을 보고 봉일은 “그 몸에 경비를 서는 것도 용한 거”라며, “집에서 그냥 쉬다고 누가 탓하겠나”라고 짐짓 위로를 건넨다. 이때 수환은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이래봐도 난 아직 일할수 있네”라고 말하지만 봉일은 곧장 화제를 바꾸어 자신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 추천받았다고 전한다.<sup>18)</sup>

봉일은 경공업대학에서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교육받게 되었음을 은연중에 자랑하면서도 자신이 주춧거리 수환이 부상을 입었다는 죄책감을 양가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수환도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봉일은 뜻밖에도 지지하고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대학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몸상태

---

17) 시모어 채트먼(Seymour Benjamin Chatman),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한용환 옮김(서울: 고려원, 1990), 172쪽.

18) 서청송, <먼저 걸으라>, 62쪽.

로야 어떻게 대학에 갈수있습니까. 나를 안심시키려고 해보는 소리겠지”라며<sup>19)</sup>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환에 대한 봉일의 감정적 반응은 복잡 미묘하다. 봉일은 수환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의 신체적 장애를 동정하고, 때로 무의식적인 멸시와 우월의식을 보여 준다. 수환이 신의주영예군인단과대학에 자신이 말한 대로 입학한 것을 보고 “정말 간단치 않은 친구”라며 그를 높게 평가하지만, 이후 보여 주는 봉일의 행동과 감정은 위선에 가깝다. 수환이 입학한 신의주영예군인단과대학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신의주영예군인경제대학으로 명명된 곳이다.<sup>20)</sup> 수환이 고향인 평양을 떠나 신의주에 정착하게 된 과정은 생략되어 있으나 인민소비품 생산 공장이 모여 있는 경공업 도시 신의주에서 대학에 다닌다는 설정은 수환이 향후 경공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게 될 미래를 예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부족한 자금에도 공장 현대화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던 2013년 배경의 에피소드에서 봉일은 “신발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수환의 공장보다 “더 현대적으로 꾸리고싶은 욕망에 불탔”다. 명단을 발표하는 날, 봉일은 새벽부터 내린 함박눈을 뚫고 가장 먼저 성청사에 온 것 같았으나, 자신의 앞에는 걸음새가 불편한 누군가가 먼저 가고 있었다.

---

19) 위의 글, 62쪽. 봉일이 수환을 불신하는 모습은 소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수환이 졸업식에서 아름다운 처녀 리금희를 약혼녀로 대동했을 때, 봉일은 “어떻게 그런 미인을 흠뻑느냐”였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환이 리금희와 결합할 수 없다는 불신의 감정이 질투와 선망을 섞은 경탄으로 나타난 셈이다.

20)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3.7.26.), <http://www.mfa.gov.kp/view/article/17185>(검색일: 2024년 6월 12일).

우리 공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우려던 나의 《원대한》 계획은 몽둥이에 맞은 눈사람처럼 졸지에 허물어지고말았습니다. 내가 저런 투지와 정열을 지닌 수환동무를 어떻게 앞설수 있겠습니까.

나는 돌아서고말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자니 나 자신이 권투경기에 출전했다가 상대편선수의 얼굴만 보고도 기권하는 그런 졸장부처럼 생각되어 차마 돌아서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신발생산경험이 많은 우리 공장이 당선될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여나 하여 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찍은 발자국을 따라 성청사로 씨엉씨엉 들어갔습니다.

(68쪽)

인용된 부분은 질투와 선망, 존경과 패배의 양가적 감정이 잘 드러난 장면이다. 자신보다 앞서 걷는 수환을 본 봉일은 “저런 투지와 정열을 가진” 수환에게 패배의 감정을 느낀다. 돌아서고 싶다는 마음은 행여나 싶은 마음에 수환이 찍은 발자국을 따라 들어간다. 이는 봉일이 올바른 길을 걷는 수환을 따라가고, 그의 방법을 배우는 이후의 서사를 복선적으로 보여 준다.

인용문은 마치 카메라 앵글이 시각적으로 만들어 내는 관점처럼 봉일이 고백하는 패배적 감정과 경험을 독자가 이야기 내부에서 직접 경험하는 느낌, 즉 직시적 전환(deictic shift)을 유발한다.<sup>21)</sup> 봉일의 감정선을 따라 몰입하는 과정은 봉일의 ‘눈’을 통해 허구의 세계를 본다는 의미에서 캐릭터와의 동일시이다. 화자가 ‘나’로서 토로하는 감정은 현실의 독자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응할 때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강렬함

---

21) Rick Busselle and Helena Bilandzic, “Fictionality and Perceived Realism in Experiencing Stories: A model of narrative comprehension and engagement,” *Communication Theory*, Vol.18, No.2(2008), p.260.

을 준다. 서사 맥락에 덧붙은 삽화는 주제를 시각화하며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스토리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서사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독자는 ‘나’의 시선에 맞춘 수환의 뒷모습과 그의 발자국을 보는 봉일의 복잡한 마음을 따라가면서,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삽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 3) 질투와 선망, 동정과 수치의 감정 역학

수환의 신체적 부상은 곧 죽음의 흔적이지만, 정신적 상흔과 신체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의지와 열의가 강한 수환의 모습은 북한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모범적 일면이다. 북한에서 신체적 불구와 대비되는 정신적 강건함은 성과의 비결로 선전되는 것으로 낯선 풍경이 아니다.<sup>22)</sup> 반면에 수환에 대한 봉일의 태도는 질투와 선망의 감정이 섞여 있다. 눈과 팔, 다리가 불편한 수환은 자신과 다름없이 대학에 가고, 미녀 혁신자와 결혼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봉일과 달리 장화 생산설비를 이관받아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수환에 대한 봉일의 경탄은 질투심이 승화된 선망을 내포하고 있다.

소설의 설득력은 허구적 세계를 공감할 수 있게 정신적 시물레이션

---

22) 영예군인공장의 열의와 창조력, 성과에 대한 『로동신문』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기사로는 “어느쪽이 더 실리적인가,” 『로동신문』, 2023년 2월 23일; “설비개조를 실속있게,” 『로동신문』, 2023년 4월 29일; “사랑과 헌신으로 지퍼올린 혁신의 불길,” 『로동신문』, 2023년 11월 22일; “먼저 찾는 사람,” 『로동신문』, 2023년 11월 26일;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아서,” 『로동신문』, 2023년 12월 10일;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경영관리의 혁신에 있다,” 『로동신문』, 2024년 3월 21일; “《우리 작업반애국일지》에 깃든 사연,” 『로동신문』, 2024년 4월 2일;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로동신문』, 2024년 7월 12일 등 다수.

(mental simulations)으로 구성하는 데에서 발생한다.<sup>23)</sup> 독자의 관점에서 수환의 성취는 감탄과 존경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런 몸’으로 무엇을 하려느냐고 은연중에 조롱하고, 의문을 표하고, 무시하는 봉일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이 수월하다. 예컨대 수환이 다 떨어진 장화를 들고 왔을 때 봉일은 처음엔 언짢았고, 수환이 계획 수행에만 매달린다면 “성의 지도일군처럼” 지적할 때는 아니꼽게 느꼈다. 골칫거리였던 장화생산 설비를 이관하려 노력하던 봉일은 그 설비를 수환네가 가져간다고 하자, “한방망이 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해”져 결정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도 못한 어려운 일을 영예군인들에게 떠맡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면 우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로 이관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66쪽)

겉으로는 영예군인을 걱정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돕고 보살펴야 한다는 배려의 감정을 앞세우지만, ‘체면’이 더 큰 원인이었다. 사회적 체면과 시선을 중시하는 봉일의 가치관은 수환과 대립적으로 서술되지만, 이는 평범하고 현실적인 성격을 자기 고백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다. 수환과 심리적으로 경합하는 봉일의 내면은 수환에 대한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동정’의 형태로 표출된다. 수환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뒤처졌던 봉일은 그에게 공장 경영법을 배워야만 했을 때 “그의 말이 거슬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

23) Keith Oatley, “Why Fiction May Be Twice as True as Fact: Fiction as cognitive and emotional simul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3, No.2(1999), pp.105-106.

에 있겠습니까”라며 감탄하듯 말해도 빈정거리는 어투를 숨기지 못한다. 그러나 소설은 봉일이 수환의 의도를 깨닫고, 목표에 감탄하고, 행동을 배우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도 그렇게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봉일과 구별되는 수환의 성격은 자기계발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고난의 행군기에 술을 생산하던 영예군인 공장을 돕기 위해 봉일이 무리해서 대량으로 술을 주문하자 수환은 다음과 같이 분노를 표한다.

«난 오늘 자네까지 만나보고 우리가 만드는 술의 가치를 똑똑히 알았네. 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이렇게 동정이나 받으며 술을 천개를 만들면 뭘하고 만개를 팔면 뭘하나? 우리 영예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수치는 동정을 받는걸세.» (65쪽)

“제일 수치는 동정”이라는 수환의 말은 공적 지원 외의 일체의 도움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체의 결함을 동정하는 봉일의 태도는 수환에게 자신을 포함한 영예군인의 완전성에 흠집을 남기는 타인의 가해이다. 수환에게 영예군인의 부상은 군인정신의 명예를 표상한다. 동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이고 이는 존재론적인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동정을 수치로 여기는 장면은 향후 서사에서 수환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것인지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국제사회 원조를 거절한 북한의 속내가 수환을 통해 드러난 것이며, 자력갱생 담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서사화한 것이다.

## 4. 곤경에 대응하는 연대기적 서사

### 1) 속도전식 양적 계획수행의 반성

〈먼저 걸으라〉의 주된 메시지는 수환이 곤경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고난의 행군, 대북제재, 코로나 팬데믹은 북한이 재난처럼 맞닥뜨린 곤경이다. 먼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연료와 전기 사정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을 때 수환네 영예군인공장은 자재도 구하기 쉽고 전기 없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술’을 생산지표로 변경했다. 영예군인은 고난의 행군기에도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았지만, 생산을 계속했던 이유는 당장 굶게 되거나 추궁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군인정신’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다.

수환은 고난의 행군 때에는 군인정신으로 위기에 대응했고,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고 새 세기가 되자 새로운 사업을 찾아 고군분투했다. 영예군인공장에서 생산할 새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수환은 장마철에는 비를 맞으며 주변 농장에도 가 보면서 영예군인공장의 목표를 찾고자 애썼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봉일의 공장에서 생산한 장화였다.

〈내가 며칠동안 조사해본데 의하면 장화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비품일세. 특히 자네 동생처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런데 아직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네. 그건 질이 한심한데도 원인이 있단 말일세. 계획수행에만 치우치지 말고 한걸레를 만 들어도 좀 질적으로 만들게나.〉 (65쪽)

수환은 인민에게 중요한 소비품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질의 낙후를 꼽으며 계획수행보다 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봉일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여 제품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계획 달성 실패에 압박감을 느껴 경공업성에 생산설비 이관을 요청한 참이었다. 현장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한 봉일은 설비를 가져가겠다는 수환을 만류하지만, 수환은 이를 단지 체면 때문이라 여긴다. “총탄이 비발치는 고지에 제일 먼저 올라가 승리의 기발을 쫓는 그런 병사로 영원히 살거”라는 수환의 대답은 선군시대 군인정신의 ‘무조건적인 관철’이 현실을 초월하는 해법임을 강조한다.

이 에피소드의 시간적 배경은 2000년대 초 새 세기 전환 시점이지만, 김정은 시대의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소설이 게재된 시기에 『로동신문』은 “질은 곧 량심”이라는 속보판을 배경으로 룡성영예군인 사출장화공장 종업원의 사진을 실었다.<sup>24)</sup> 2014년 5월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제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속도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질적 성장을 소홀히 여긴 것이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자력갱생을 한다면서 “질을 떨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고 “물질경제생활에서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게 되었다며 공개 비판되기도 했다.<sup>25)</sup>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량적지표를 보장”하는 ‘질제고사업’은 모든 생산분야에 요구된 사항이었다.<sup>26)</sup> 소설에서 수환이 지적하는 문제점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수행’에 몰두하느라 발생한 품질

24)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동신문』, 2023년 8월 6일.

25) 손영석,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3호(2014), 17~18쪽.

26) 김철룡, “질제고는 중요한 정치적사업.” 『로동신문』, 2020년 11월 25일.

저하는 양적 목표 중심의 허실이다.

이때 설비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솔도 손노동으로 만들던 공장에서 장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봉일의 의구심은 타당하다. 그러나 소설은 경험과 기술 부족 문제를 영예군인공장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하지 않았다. 2000년대 수작업으로 지퍼를 생산하던 영예군인공장이 장화로 업종을 바꾸어 크게 성공한 일화는<sup>27)</sup> 북한 내에서 널리 알려진 참조점이기 때문이다.

## 2) 전경화된 현대화의 숨겨진 기의

수환의 공장이 장화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자 봉일은 평범한 근로자도 하기 힘든 일을 몸이 불편한 영예군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상부의 도움을 받은 게 비결이 아닌지 의심한다. 소설 속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독자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영예군인공장의 구체적인 성과는 신문과 방송에서 널리 선전되기에 소설은 그들의 ‘고상한 정신’을 맥락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상한 정신에 대한 에피소드는 김정은이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연설했던 2013년을 배경으로 한다.<sup>28)</sup> 김정은의 연설 이후 경공업공장에

---

27) “돈벌이에 발벗고 나선 北공장 사례,” 통일뉴스, 2005년 7월 13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11>(검색일: 2024년 6월 12일).

2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3월 19일.

김정은은 2013년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연설에,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문제를 풀어야 한다.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리고 그 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정은은 평양양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김정숙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류경김치공장 등에서 잇따른 현지지도를 하였다.

는 ‘현대화바람’이 불었다. 봉일은 “건물도 현대적으로 짓고 사출구두 설비도 새로 차려놓자”는 현대화계획과 자금타산안을 성에 보고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제재로 하여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조건”하에서 모든 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경공업성 부상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제재”로 기간공업 부문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이 인민생활 향상을 급선무로 내세워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이지, 넉넉한 살림이어서 “폭폭 퍼주는게” 아니라며 국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배인들을 철이 없다며 꾸짖는다. 이 같은 정황을 보고 들은 수환은 “자체로 현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다른 예비 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현대화를 진행한 수환은 원료 문제를 ‘재자원화’로 해결하고자 한다. 수환의 공장 원료창고 앞마당에는 “파장화, 파싼달, 깨진 수지소랭이, 낡은 수지바가지와 같은 수지오물은 물론 차바퀴, 자전거바퀴, 고무장화를 비롯하여 파고 무까지” 쌓여 있다. 이들은 봉일에게 ‘오물’로 취급되지만 수환에게는 재생하여 쓸 수 있는 ‘보물’이었다. 수환의 인식은 “쓰면 보물, 버리면 오물”과 같이 재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경구와 같으며, 경공업 부문의 중요한 과업이 되는 미래를 선행한다.<sup>29)</sup> 소설의 시점에서 생산 결과는 썩 신통치 않았지만, 수환은 좀 더 노력하여 기술을 높이면 질이 좋아 지리라 낙관했다.

《남들은 자네만 못해서 원료를 수입해오는줄 아나? 다 애로가 있기때 문이야. 자체로 현대화를 하자니 자금이 딸려서 립시방편으로 이런걸 고안한것같은데 그만두라구. 기술적으로 해결 못하면 어쩔려나?》  
《립시방편이 아니야.》

---

29) 김학철, “작은것에서 큰 재부를 얻는 사람들,” 『로동신문』, 2020년 5월 19일.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난 오히려 수입원료가 더 깨름하고 림시적이라고 보네. 제국주의자들이 계속 제재를 가하는데 최근엔 그 품목이 더 늘어나고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원료도 얼마나 비싸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들여오나. 그래도 지금은 원료가 들어오니까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데 앞으로 아예 못들어올 땐 어쩌겠나? 그러면 공장안에서 번쩍거리는 설비들이 다 파철로 될걸세. 재자원화를 하여야 한다는것은 당정책이 아닌가. 그대 로만 하면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끄떡없을걸세.» (70쪽)

수환은 수입 원료가 “깨름하고 림시적”이라며 오히려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현대화된 설비는 모두 ‘파철’이 되리라 우려한다. 자동차 바퀴도 재생해 사용하고, 파수지로 수지관이나 수지 화분 등도 만들겠다는 수환은 봉일의 눈에 “종합공장”을 만들려는 “공상가”로 보일 뿐이다. 생산정상화에 신경을 쓰라는 봉일의 말은 2013년 김정은의 연설을 기반으로 한 조언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은 공상가처럼 보였던 수환의 방법이 미래를 대비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sup>30)</sup> 사업을 추진했고,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계획했다.<sup>31)</sup> 에피소드의 계기였던 2013년 김정은의 전국경공업대회 연설은 경공업 발전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 사업이기에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높

---

30)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로동신문』, 2012년 8월 3일.

31)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은 수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은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생명선”으로 하고, 원료와 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입병’이 경공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김정은의 지적이 미래를 예견한 것으로 묘사한다.<sup>32)</sup> 봉일은 당의 현대화 정책에 따르고 소비품 생산을 실천했지만, 국산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소설은 이를 결정적인 과오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대북제재 아래 자립경제를 구축하고자 한 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적 결함에 가깝게 그리고 있다. 제품의 가짓수나 채우고 양적 지표에 치중한다면 ‘수입병과 의존심’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는<sup>33)</sup> 문제점을 봉일이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환의 재자원화에 대한 고민은 미래의 담론을 선행한다. 북한은 1980년대 생활필수품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을 때 소비재 증산을 목적으로 유희자원의 재사용 정책을 펼쳤다. 재활용 정책은 체계적인 자원의 순환 정책으로 보기엔 미흡했지만, 자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 재사용을 독려했던 것이었다.<sup>34)</sup>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재자원화 논의를 본격화했고, 2020년 4월에 ‘재자원화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재자원화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경공업부문에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로 재차 강조되

---

3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3월 19일.

33) 김철룡, “질제고는 중요한 정치적사업,” 『로동신문』, 2020년 11월 25일.

34) 박창진, “북한의 재(再)자원화 추진현황,”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북한포커스, 2021년 6월 21일.

었다.<sup>35)</sup>

현대화는 김정은 집권 초기 세계화와 함께 대두된 중요 담론이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 ‘파찰’이 될 수 있다는 수환의 말처럼 현대화로 이룬 외적 변화는 텅 빈 기표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공장이 앞다투어 현대화 지원을 받으려 할 때 자체 해결을 목표로 한 수환은 김정은의 ‘국산화’ 전략이 제재와 봉쇄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현대화 기표를 채우는 기의임을 암시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 기준과 목표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 에피소드는 재자원화를 고민하는 수환에게 초점을 맞추므로써 자원의 국산화가 진정한 현대화임을 강조한다. 수환의 발상과 행동은 2013년을 배경으로 하지만, 재자원화를 당정책이라고 명시하며 최근의 문제의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후 재자원화는 대북제재와 보건 위기가 중첩되었을 때 경제적 고립과 원료 부족 문제를 타개하는 해법으로 전면화된다. 현대화는 화보처럼 번쩍이는 최신식 설비, 건물 외장의 화려함, 빌딩 높이에서 획득되지 않는다. 현대화의 숨겨진 기의는 고립된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며 내핍을 견디는 자구책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내핍의 재자원화와 자기계발의 자원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몰아온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오자 봉일은 수환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는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첫해는 그럭저럭 지탱했으나 2021년이 되자 ‘골탕’을 먹으면서 생산량은 계속 줄

---

35)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어 들었다. 수환이 예고한 것처럼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변칙변칙한 현대적 설비들’이 파철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봉일은 “겨울날 매미가 개미네 집문을 두드리듯 동냥바가지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수입 원료는 없었다. 보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편에서 가지고 있는 원료를 나누는 공장도 없었다. 상부에 생산계획 조절을 요청했지만, “당결정에 반영된 계획은 수정되지 못”한다는 답만 받았다. 봉일이 국가로부터 받은 방조는 원료가 아니라 “참관”이었다. 보건 위기에 모두의 형편이 곤란을 겪는 중에도 수환의 공장은 그렇지 않았다. 수환의 공장은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강조한 김정운의 말을 “심장에 새기고” 실천하는 데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다른 공장들이 원료 수입에 곤란을 겪었다면, 수환의 공장은 자체 힘으로 안료나 발포제 같은 첨가제는 물론이고 국산화할 수 없었던 가소제까지 연구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 “애로도 없이 생산을 팡팡”하게 된 것이다.

소설의 주요 참조점은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이다. 이 영예군인 공장은 ‘쓰면 보물, 버리면 오물!’을 기치로 낚은 장화를 회수하여 원료로 대용하고 ‘하나의 자재라도 극력 절약’하며 ‘간진 일숨씨’로 성과를 내는 곳으로 소개된 바 있다.<sup>36)</sup> 게다가 대용가소제를 개발하여 수입 원료 없이 제품의 질을 높였다.<sup>37)</sup> “못쓰게 된 오물들”로 각종 생활 물품을 만들며 성공적으로 재자원화를 이룬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의 일화는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소설에 수용되었다.

한편, 국산화, 재자원화는 국제적 고립과 제재 속에서 내뿜을 건디기

---

36)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에서: 버릴것이 하나도 없다.” 『로동신문』, 2019년 2월 4일.

37) “재자원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조선중앙통신, 2020년 5월 9일.

위해 선택했던 자구책이었지만 소설은 수입을 거부하고 죄악시하는 가치관을 ‘은정차’와 ‘수입차’ 대비로 나타낸다. 수환은 “먹어보지도 않고 수입차가 더 좋다”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제것을 만들 생각을 안하고 남만 쳐다”보는 행태를 비판한다.

《당에서 가리켜준 길로만 가면 되네. 내 한마디 충고할가? 항상 남보다 먼저 걸으라구. 남의 뒤만 따라다니다가는 한생을 실패하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 공장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어떤 각오로 실현한줄 아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어깨우에서 자그마한 짐이라도 덜어드리자고 그래서 우리 영예군인들도 뚝뚝한 모습으로 강국의 당당한 공민이 되자고 어려운 길이지만 앞서 걸어간거네!》 (72쪽)

‘남보다 먼저 걷는’ 영예군인들이 김정은의 짐을 덜어주고 뚝뚝한 강국의 공민이 되겠다는 각오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이루었다는 인용구는 소설의 주제를 서술한 부분이다. 소설은 두 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 따라 기술인재가 되어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공장을 ‘우리식’으로 전환하고, 대용가소재를 개발했다고 다시금 강조한다. 봉일 또한 재자원화 생산공정을 마련하며 액자의 이야기는 끝을 향한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라는거야 당정책이 아닌가.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서로 도우며 살자구”라는 수환의 말은 경영 방법과 기술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다른 북한의 사회주의 미풍이자 곤경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과시되고 있다. 재자원화는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역량, 네트워크 관계를 포함하여 국

가의 발전,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순환하는 원리로 역설되고 있다.

방송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보도가 올려왔습니다.

핵무력정책의 법화라는 위대한 사변을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드렁드렁 울려주었습니다.

수환동무는 너무 흥분하여 지팡이를 놓고 나의 손을 짝 잡더군요. 그러더니 힘있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우리 핵강국의 공민답게 살자구!》

그는 나를 뒤에 두고 지팡이를 내버린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같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인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4쪽)

액자의 내부 이야기는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소식에 “핵강국의 공민답게 살자”라는 수환의 말로 마무리된다. 2022년 9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은 2017년 11월 29일 조선중앙TV에서 ‘중대보도’ 형식으로 핵무력 완성이 선포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소설은 핵보유국의 지위 등을 명문화한 핵무력정책법 제정 소식을 통해 핵 보유가 ‘위대한 나라’임을 상징한다고 공표한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게끔 압력을 가했지만, 소설에서조차 제재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만성화된 자원난과 경제적 곤경을 물적, 인적 재자원화로 대응하는 양상은 내핍의 순환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주요 서사 맥락인 통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의 성공담은 TV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조명되었다.<sup>38)</sup> 반복적으로 제시된 영예군인의 내러티브는 익숙할수록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압박으

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최근래의 사건을 소재로 한 서사는 독자가 사실로 받아들여 소설의 세계를 직시하게 한다.<sup>39)</sup> 그러기에 최근의 보건 위기 상황을 겪은 일인칭 화자의 고백과 화자가 경험하고 목격한 수환의 성공담은 서사의 설득력을 높여 소설이 전개하는 신념과 태도를 독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인다.

## 5. 나가며

이 소설의 내부 이야기는 눈, 팔, 다리가 손상된 영예군인 수환이 주 인물이다. 수환은 팔 하나가 없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고, 앞을 보는 데 한쪽 시야가 막혀 있어 온전하게 전망하기 힘들며, 제대로 걷지 못해 지팡이에 의존한다. 이는 대북제재와 봉쇄, 국제적 고립, 경제적 곤경에 처한 북한의 상황을 수환의 신체적 손상으로 환유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정을 수치로 여기고, 자력과 자립을 온전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수환의 성공담은 곧 북한이 축적하고 싶은 성공담이다. 그런 점에서 수환은 주제를 의인화한다. 주제의 의인화는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

38)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을 소개하는 조선중앙TV의 소개편집물은 다음과 같이 2007년부터 꾸준히 방송되고 있다.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는 영예군인들,” 조선중앙TV, 2007년 8월 21일; “병사시절 그 정신이 안아온 전변,” 조선중앙TV, 2009년 8월 23일;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조선중앙TV, 2010년 1월 26일; “호평받는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조선중앙TV, 2015년 4월 1일; “영예는 위훈속에 빛난다,” 조선중앙TV, 2017년 6월 2일; “보탬을 주는 공장,” 조선중앙TV, 2019년 2월 8일 등 참조.

39) Daniel T. Gilbert, “How Mental Systems Believe,”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No. 2(1991), p. 111.

주는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질과 특성을 주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sup>40)</sup> 수환의 행동을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표시하는 방식은 소설의 제목과 액자의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불편한 신체는 선도적으로 행동하며 앞서기 위해 ‘먼저 걷는’ 것에 어떤 장애 요소가 아니라는 점,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은 곤경 그 자체이지만 수환처럼 자체의 힘으로 자기계발과 완성을 통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주제를 개념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액자 밖, 외부 이야기는 어떻게 종료되고 있는가? 작가는 수환이 아이들의 핵대 문제를 풀기 위해 ‘자체로’ ‘무인화핵피생산설비’를 시험하느라 경공업성 회의에 늦었다며 수환이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새벽부터 공정을 시험했다는 수환의 말에 모두가 “영예군인들은 불사신들”이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은 실패했다. 앞서 국산화된 대용가소제도 무수한 실패 속에서 거둔 성공이듯, 모두는 수환의 실패가 언젠가는 성공으로 전환될 것을 지지한다. 수환 또한 “당에서 바라는 일인데 우리가 먼저 걷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회의 참가자들 또한 축하를 앞당겨 보낸다면서 ‘출발신호총소리’처럼 박수를 보내며 소설은 끝을 맺는다.

수환의 재자원화와 자체 힘으로 수입 원료를 대체한 성공담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자기 거버넌스(self governance)’의 북한식 변형이다. 북한식 자기 거버넌스는 대북제재의 압력에 튕겨 나온, 전통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경계를 초월하는 다양한 방식 중 일부로 북한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맞게 수렴한 형태

---

40) Jonathan Charteris-Black, *Politicians and Rhetoric: the Persuasive Power and Metapho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4), p.41.

라고 볼 수 있다.<sup>41)</sup> 여기에는 수환처럼 인민대중의 자기계발이 국가발전의 담론에 용해되며 탄력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 개인의 자기계발 이데올로기는 이상적인 자기완성을 향해 자신을 채근하는 자기진화론적이다.<sup>42)</sup> 그러나 북한의 자기계발 이데올로기와 고립된 자기거버넌스는 제재와 봉쇄 아래 부족하고 결핍된 미성숙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사회를 탈중심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접근한 대안에서 파생되었다.

액자의 마지막 장면이 핵무력정책법 소식인 것은 핵 문제에서 시작된 대북제재가 북한을 온건하게 만드는 계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적 관계성에서 탈각된 단자(monad)가 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걸으라’는 소설 제목은 파라텍스트(paratext)이자 주제를 표상하는 개념적 은유이다. 핵강국을 적시하는 법화는 다리를 저는 수환이 지팡이를 버리고 성큼 걷게 하는 힘 자체이다. 또한, 소설 종결 부분의 실패와 미해결은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 준다.

■ 투고: 2024.06.30. / 수정: 2024.07.31. / 채택: 2024.08.02.

---

41) Eva Sørensen and Peter Triantafillou, *The Politics of Self – Governance* (New York: Routledge, 2016), p.5.

42)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인간·환경·미래』, 제19호(2017), 14쪽.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논문

서청송, <먼저 걸으라>, 『조선문학』, 제8호(2023), 61~74쪽.

손영석,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3호(2014), 17~18쪽.

#### 2) 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3월 19일.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로동신문』, 2012년 8월 3일.

\_\_\_\_\_,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김철룡, “질제고는 중요한 정치적사업,” 『로동신문』, 2020년 11월 25일.

김학철, “작은것에서 큰 재부를 얻는 사람들,” 『로동신문』, 2020년 5월 19일.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에서: 버릴것이 하나도 없다,” 『로동신문』, 2019년 2월 4일.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동신문』, 2023년 8월 6일.

#### 4) 기타 자료

“병사시절 그 정신이 안아온 전변,” 조선중앙TV, 2009년 8월 23일.

“보탬을 주는 공장,” 조선중앙TV, 2019년 2월 8일.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조선중앙TV, 2010년 1월 26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2023.7.26.), <http://www.mfa.gov.kp/view/article/17185>(검색일: 2024년 6월 12일).

“영예는 위훈속에 빛난다,” 조선중앙TV, 2017년 6월 2일.

“재자원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조선중앙통신, 2020년 5월 9일.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는 영예군인들,” 조선중앙TV, 2007년 8월 21일.

“호평받는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조선중앙TV, 2015년 4월 1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채트먼, 시모어(Seymour Benjamin Chatman),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한용환 옮김(서울: 고려원, 1990).

### 2) 논문

김성수, “천리마에서 만리마로: 김정은 시대 11년간의 문학,” 『반교어문연구』, 제62호(2022), 233~264쪽.

\_\_\_\_\_,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문학,”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_\_\_\_\_, “8차 당대회 전후(2019~2023) 북한문학 동향과 쟁점: 『조선문학』, 『문학신문』 매체 분석과 ‘과학기술 룡마’ 기수 형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82집(2023), 285~320쪽.

\_\_\_\_\_, “‘선군 투사’에서 ‘과학기술 룡마 기수’로: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 『통일과 평화』, 제15권 2호(2023), 11~43쪽.

오창은, “북한문학의 미적 보편성과 정치적 특수성: 비체제적 양식과 민중적 해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41호(2015), 15~56쪽.

오태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고찰: 사회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균열적 독해,” 『인문학연구』, 제38호(2018), 147~176쪽.

\_\_\_\_\_, “2019년 『조선문학』을 통해 본 북한문학의 당문학적 지향성 고찰: 자력갱생의 정신, 세계 일등의 지향, 과학기술 강국의 욕망,” 『한민족문화연구』, 제71집(2020), 7~38쪽.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최근 『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1호(2023), 131~158쪽.

이지순, “감각에 사로잡힌 몸의 발견과 재현: 북한 단편소설 럽예성의 「사랑하노라」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40호(2023), 117~138쪽.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인간·환경·미래』, 제19호(2017), 3~28쪽.

### 3) 기타 자료

- “돈벌이에 발벗고 나선 北공장 사례,” 통일뉴스, 2005년 7월 13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11>(검색일: 2024년 6월 12일).
- 박창진, “북한의 재(再)자원화 추진현황,”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북한포커스, 2021년 6월 21일.
- 이지순, “북한 문학의 팬데믹 재현: 재난 리더십과 코로나19 경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2, 2023년 3월 28일.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 Charteris-Black, Jonathan, *Politicians and Rhetoric: the Persuasive Power and Metapho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4).
- Sørensen, Eva and Peter Triantafyllou, *The Politics of Self-Governance* (New York: Routledge, 2016).

### 2) 논문

- Appel, Markus and Tobias Richter, “Persuasive Effects of Fictional Narratives Increase Over Time,” *Media Psychology*, Vol.10(2007), pp.113~134.
- Busselle, Rick and Helena Bilandzic, “Fictionality and Perceived Realism in Experiencing Stories: A model of narrative comprehension and engagement,” *Communication Theory*, Vol.18, No.2(2008), pp.255~280.
- Fisher, Walter R., “Narration as a Human Communication Paradigm: The case of public moral argument,” *Communications Monographs*, Vol.51, No.1(1984), pp.1~22.
- Gilbert, Daniel T., “How Mental Systems Believe,” *American Psychologist*, Vol.46, No.2(1991), pp.107~119.
- Oatley, Keith, “Why Fiction May Be Twice as True as Fact: Fiction as cognitive and emotional simul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3, No.2(1999), pp.101~117.

3) 기타 자료

Lubbock, Percy, “The Craft of Fiction, Project Gutenberg eBook,” 1 August, 2006,  
<https://www.gutenberg.org/cache/epub/18961/pg18961-images.html>(검색일: 2004년 6월 19일).

# The Chronicle of Predicament and the Quilting Point of Fiction

## Focusing on Seo Cheong-song's Short Story "Walk First"(2023)

Yee, Jisun(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his short story "Walk First" (2023), Seo Cheong-song employs the framed novel technique to depict the process of overcoming economic hardship amid sanctions, blockade, and international isolation. The protagonist, Su-hwan, is an honorary soldier who has sustained injuries to his eye, arm, and leg. He serves as a representative figure for the theme, employing metaphorical language to illustrate the debilitating circumstances and coping strategies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 Su-hwan's ability to overcome the blockade by transforming waste into resources, operating a factory with optimal efficiency, and eschewing pity in favor of resilience aligns with the North Korean ideal. While the novel portrays the mental strength and determination of the protagonist, an honorary soldier, as the driving force behind North Korea's self-reliance and overcoming the crisis in international isolation, this is

at odds with the beleaguered situation and reveals a deepening sense of deprivation. The ongoing pandemic and sanctions have rendered the initial agenda of Kim Jong Un's rise to power, namely modernization, an empty signifier. The narrative of self-reliance and localization in response to sanctions indicates that the discourse of self-reliance and self-renewal is a desperate survival strategy that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adopt in the face of overlapping predicaments. This represents a variant of self-governance in North Korea, whereby the country assumes responsibility for its own affairs and provides for its own needs.

Keywords: North Korean literature, Kim Jong-un era, sanctions, COVID-19, emotions of shame, empty signifiers, modernization, rematerialization, self-governance, self-improvement